

서울 와우 북 페스티벌

'와우!' 책도 만나고, 출판인도 만나 보

출판인들이 독자들에게 '책읽기의 즐거움'을 제대로 알리고 그들과 소통해 보고자 축제 한마당을 준비하고 있다. 오는 9월 열릴 홍대앞 '서울 와우 북 페스티벌'이 그것.

페스티벌측은 "우리 사회의 독서운동과 독서풍토가 어떠한지 고민하며, 그 전형을 보여주는데 목적이 있다"고 행사의 취지를 밝힌 상태다. 특히 홍익대학교 뒷산 이름과 영어의 감탄사를 차용해 만든 '서울 와우 북 페스티벌'은 타이틀에서부터 책이 주는 부담감을 걷어냈다.

페스티벌을 준비하고 있는 홍익출판사 이승용 대표('서울 와우 북 페스티벌' 공동조직위원장)는 "그간 출판사와 독자가 만나는 통로가 서점밖에 없었던 게 사실이다. 이번 축제를 통해 독자와의 소통로를 마련하고 그들과 대화를 해보고 싶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홍대 입구 주변에 있는 300여 군데 출판사의 출판인들 중 몇몇이 마음을 모아 기획했다.

흔히 홍대입구라 말하는 서교동 일대는 국내 대표적인 출판 클러스터로 소문나 있는 지역이다. 서교동에 300여 군데 출판사가 있고 인근의 마포지역까지 합치면 1,600여 개의 출판사가 밀집해 있다. 여기에 잡지사, 번역 에이전시, 디자인 업체까지 합치면 1,800여 개의 출판관련 회사가 집합해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과연 예술가 동네이기도 하지만 거대한 책동네라 불려도 이상할 게 없는 곳이 마포 및 서교동 주변이다.

홍대 주변을 진정한 책의 요람으로 거듭나게 할 이번 축제는 독자와의 어울림을 지향하는 만큼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 대표는 "출판사별 부스를 꾸려놓고 출판물을

알리는 것은 기본이고 책에서 파생된, 책과 연계된 상상 이상의 즐거운 행사들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훈의 《칼의 노래》를 소개한다 하면 작가 김훈씨를 초대해 카페에서 작가와의 대화 시간을 갖고, 황선미의 《마당을 나온 암탉》이라 하면 이를 한 편의 연극으로 만들어 색다른 방식으로 소개할 생각입니다. 무엇보다도 독자와 작가, 출판인들이 직접 소통할 시간을 많이 마련할 계획이죠."

특히 조직위원회측은 홍대주변의 카페와 갤러리 등과 연계하고 윤도현, 정태춘 그리고 지명도 있는 그림 작가들의 참여도 유도할 것이라고 해 젊은이들의 뜨거운 관심을 예상케 했다. 또한 출판인들이 자사 사옥을 개방해 책 만드는 과정을 알리고 자사의 출판색깔을 알리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어서 출판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에게도 좋은 경험을 선사해 줄 것으로 기대가 높다.

조직위원회측은 현재 7월 초까지 완성할 행사 프로그램을 정리중이다. 지금까지 홍대입구 주차장 거리를 중심으로 한 부스 코너엔 60여 개의 출판사가 참여의사를 밝힌 상태다. 알찬 책 축제로 개최될 이 페스티벌은 마포구청에서 4,700만 원, 서울시·문광부에서 각각 2,000만 원을 지원받는다. 이 대표는 "이 밖에도 대기업 스폰서도 예상하고 있다"며 "이 축제를 계기로 '한 도시 한 책 운동'처럼 각 도시별로 책 축제를 개최하는 일이 늘어났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서울 와우 북 페스티벌'은 9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4일간 개최될 예정이다. **홍익**

취재 김형연 기자